

만리장성의 나라, 중국을 가다 ②



한인수
한국건강관리협회 조사연구부장

4시경에 호텔을 출발해 우리는 중국예방 의과학원을 방문했다. 일행은 왕 케 안 부 원장실로 안내되었다. 그는 작년에 한국을 방문해 제주도까지 구경했다며 우리를 반 가이 맞아 주었다. 상해의 쟁 쟁 씨도 합석 했는데, 이들이 바로 중국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중견 의료인들인 것이다.

기생충관계 책임부서장인 Dr. 씨유 여사 가 동석하여 사진첩으로 된 과학원 현황과 중국의 기생충관리 현황이라는 영문판 소 책자를 건네주었다. 참석자들은 향후 한· 중 기생충 관리와 양 국민의 건강증진 사업 에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등의 협의를 마친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호텔극장에서 경극(京 劇)을 구경했다. 극장은 관광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중국의 유명한 소설을 판토파임 으로 보여주었고 중국인 특유의 재주인 창

던지기와 덤블링 등의 묘기도 곁들여져 아 주 재미있었다.

16일부터 일행은 북경의 명소를 관광하 게 되었다. 이날 우리는 호텔 프론트에서 서울까지의 항공편을 확인하는데 60원(우 리 돈으로 6천원 정도)을 내야 했다. 대한 항공(KAL) 북경지사 전화번호까지 알고 왔는데 직접 전화로 확인할 걸 하는 후회와 함께 기분이 영 좋지 않았다.

시내 관광 안내는 전날 공항에서 만난 여 자가 해주기로 했다. 그녀는 밝이 대단히 춤다면서 두툼한 외투를 입고 있었다. 우리 일행도 파카를 걸치고 그녀를 따라 나섰다.

첫째 코스가 자금성! 입장에서부터 문 제가 생겼다. 그들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입 장료에 차등을 두어 외국인에게는 두배로 받는 것이었다. 처음에 우리는 중국인 표를 샀는데, 입구에서 협상국은 청년이 외국인

을 가려내고는 표를 다시 사오라는 것이다. 말만 듣던 차등 물가가 정말 실감났다.

자금성에 들어가니 그 웅장한 전각이며 넓은 면적 등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약 22만평의 궁전을 높이 10m가 넘는 담장이 둘러싸고 있고 외성곽에는 넓이 50m의 해저로 되어 있으며 성곽의 구석마다 3층의 망루가 설치되어 있다. 크고 작은 9천여개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는 이 성을 주마간산격으로 직선 코스로만 보는데도 3시간 정도 걸렸으니, 서울의 성곽이나 궁전을 비교하니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이 장엄한 공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장인들이 동원되었을까 생각하니 왕실의 호사스러움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자금성은 명·청·조의 옛 궁전으로 1406년에 시작하여 1420년에 완성되었으며 그후 재 건축과 중수를 거쳐 완성되었다고 한다. 주 궁사(主宮廡)는 외조(外朝)와 화내연이(和內延)으로 양분되어 있고 외조는 3개의 홀이 있는 태화·중화·보화 등의 3층 건물로 되어 있으며 테라스와 계단은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었다. 태화전(太和殿)은 황제의 각종 행사 장소로, 중화전(中和殿)과 보화전(保貨殿)은 황제 신하들과 고관들의 접견에 이용되었다. 내전 양편은 동서로 여섯개의 궁이 있는데 주로 비빈(妃嬪)의 거처로 이용되었다.

명·청조의 24명의 황제가 491년 이상을 살았던 이 성은 현존하는 궁성 중 최대 규모이며, 궁전 건축물로는 건축 예술의 극치라고 한다. 현재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금성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중국 역사·문화·예술 등의 보고이기도 하다.

또한 이 성의 정면에는 천안문이 있는데, 이것은 명청 궁궐의 정문에 해당되며 북경시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1417년에 최초로 건축되어 당시에는 승천문(承天門)이라 했다가 1651년 중수를 거쳐 천안문으로 개칭되었다. 천안문은 하단에 붉은 축대로 이루어진 5개의 관문이 있고 그 위에 2층의 황색기와 지붕으로 된 성루가 있으며 정문 전후에는 금수하(金水河)가 있어 그 위의 5개의 대리석 다리를 통해 정문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다리의 전면을 천안문 광장이라 하는데 1949년 모택동 주석이 이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한다. 지금 이 정문 성루 중앙에는 모택동 주석의 사진이 걸려 있다. 천안문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줄을 이을 정도로 이곳은 빼놓을 수 없는 북경의 중요한 명소 중의 하나이다.

우리 일행도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인근 한국 음식점 고려 주가(酒家)를 찾았다. 이 음식점은 두산그룹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북경의 한국인 관광객이나 장기 체류한인을 위해 착안해낸 것인데, 김치·짜두기·불고기에 한국술 ‘청하’까지 곁들여졌다. 며칠동안 기름기 많은 중국음식에 질린 상태에서 맛보는 고국의 음식이고 보니 맛은 둘째로 치고 반가운 마음부터 앞섰다.

이날 저녁은 중국예방의학과학원장의 초청 만찬에 참석했는데 전통 중국 요리점이



여름정원에서
기념 촬영

었다. 후덕한 인상의 쟁 위(會毅) 중국예방의학과학원장은 만찬 석상에서 우리 일행에게 일일이 신경을 쓰는 섬세함을 가진 자상한 노학자인데, 그 밖에 세계보건기구 암자문관과 중국과학원의 위원을 겸하고 있었고 바이러스 연구소의 선천성 면역결핍증 연구보서의 장도 겸하고 있는 매우 세련된 국제 신사였다.

18일에는 만리장성을 보러 갔다. 시내에서 서북 방향으로 40분 거리에 있는 북방 제1관문(이곳이 만리장성 중 제일 중요한 관문)에 도착하니 말로만 듣던 만리장성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 길이가 6,700km나 된다고 한다.

만리장성은 중국 고대의 중요 군사시설로써, 기원전 7세기에 축성이 시작되었고 진시황이 중국 통일 후 북방의 흉노족의 남침을 막기 위해 축조토록 했다고 한다. 그 후 제후들에 의해 증축되는 등 10여년에 걸쳐 완성 되었으며 그후에도 역대 왕조의 중수가 계속되어 명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18번의 증개축이 이루어졌다고 있다.

결국 장성을 완성시키는데는 도합 200년이나 걸렸다는 것이며 서쪽간수성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하북성, 산해관까지 험산·들판·사막 등 6성(省) 1시(市)를 가로질러 뻗어 있다. 대부분의 성곽이 지금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북경 팔달령의 장성은 대표적인 명나라 장성으로, 성곽 높이가 8.5m, 폭 6.5m, 성곽 위의 폭이 5.7m, 성곽 위의 담 높이가 1m나 되는 장성(長城)은 최초의 우주인 암스트롱이 달에서도 보았다는 일화가 말해주듯 세계 제일의 불가사의한 인공축조 예술의 하나이기도 하다.

어쨌든 북쪽의 어떤 무서운 오랑캐를 경계하고자 진시황이 이같은 대 역사를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으로부터 지키고자 했던 그의 부귀영화는 얼마나 지속되었으며 그 많은 변방의 제후들, 그리고 노역에 동원된 백성들의 고충은 또 얼마나 컸을까 싶은 마음에 불로장생의 명약을 구하려고 무던히도 애썼다는 진시황의 욕심이 부질없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좌우간 주변 풍경이 연경팔경의 하나라

고까지 일컬어지는 이곳 성곽에 잠시 올라 기념사진을 몇장 찍고 일행은 돌아 내려 왔다. 내려오는 길에 커피나 한잔 마시려고 인근 선물코너에 들렀는데, 북한 말씨의 조 선족 점원까지 채용하여 한국 관광객을 상대하고 있었으나 물건값이 너무 비싸다고 느껴졌다. 상아도장 하나가 18만원 정도로, 이름을 적어놓고 가면 새겨서 호텔까지 전달해주겠다고는 했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별로 살 생각이 나지 않았다.

오후에는 지하 궁전이라고도 하며 명 13릉(明 13陵)으로 알려진 것을 찾았다. 명 13릉은 북경 서북방 50km 지점 천수산 주봉에 자리하고 있는 명나라 13대 황제의 무덤으로 1409년에 시작하여 1644년까지 200여년에 걸쳐 비밀리에 축조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금구(禁區)로 되어 그후 200년간 망각의 지역으로 있다가, 1956년 초여름 중국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이 시작되어 명조 13대 황제 朱翊鈞(Zhu Yi-Jun, 1573~1620)의 능으로 판명되었다. 이처럼 수백년간이나 비밀이 유지된 것은 당시 지하 궁전을 설계하고 공사에 참가했던 장인들을 모두 죽여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그같은 지하궁(무덤)이 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과 함께 3천점이 넘는 금은·진주·의류 등이 나온 이곳은 그후 중요한 관광명소가 되었다고 한다.

외국인의 입장료는 예외없이 내국인의 2배를 받았는데, 외국인 특별 대우란 측면보다는 중국인 우선이라는 중화(中華) 자존심*의 발로가 이같은 차별로 나타난 것이 아

닐까 싶었다.

3월 18일, 꿈같은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귀국하는 날이었다. 서울행 비행기 수속을 마치고 면세점을 기웃거렸는데, 중국산 전통 술값이 양주값보다 비쌌다. 한국사람으로 보이는 관광객이 몰려 있는데 귀국 선물로 중국 술을 사려는 모양인지, 우리도 한참을 기다려서야 살 수가 있었다.

우리는 중국에서 쇼핑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경험자들의 말에 따르면 중국의 색채 감각은 한국인에게 잘 맞지 않으며 더러사간 선물들도 호감이 가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상품의 끝 마무리가 정교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서예도구인 벼루·붓 등도 상상외로 비싼 편이었으며 그림(목화류 포함)도 엄청나게 고가여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또한 어떤 관광명소든 간에 출입구에는 암달러상들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몇 분 더 받으려다 달려만 빼앗기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간혹 부정 위조지폐까지 섞이는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라고 한다. 따라서 환전은 반드시 호텔에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을 중국 여행객들에게 전하고 싶다.

비행기를 타고 한시간 남짓 날아와서 시계를 한시간 늦춰 조정하고 보니 13시 40분, 마침내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불과 며칠에 불과한 여행이었지만, 조국의 땅을 밟는 우리 일행의 마음은 너무도 편안해졌고 또 새로운 설렘으로 가득찼다. ㉔